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⑤

큰 연꽃이 화려히 솟아오르는 데.

십지의 완성은 법운지에 있다. 법운(法雲)에 대해 청량 스님은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인용하여 "큰 법신을 얻어 자재한 능력을 구족하였으므로 법운지(法雲地)라 한다"고 하였고, 또 유식에서는 "큰 교법의 지혜의 구름이 많은 덕의 물을 함유해서, 허공과 같은 모든 무거운 번뇌를 가리고 법신에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법운지는 일체지지위(一切智識位)를 받는 것이다. "그 마지막 삼매는 이름이 일체지를 받는 승묘한 직위(受一切智勝識位)다. 이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에 대연화(大蓮華)가 화려히 솟아오르는데, 그 꽃이 넓고 커서 양이 백만 삼천대천세계와

모든 부처님의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나라"

이 공덕은 억겁동안 말로 못 다해.

이제 십지품의 마지막 내용이 다. 총체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십지법문이 끝나자 타방(他方)의 여러 부처님께서 오셔서 증명하신다. "잘하였도다, 금강장이여. 이 법을 통째로 말하였도다. 우리들은 다 같이 이름이 금강장이며, ... 모두 부처님의 신력으로써 이 모임에 와서 당신을 위하여 증명합니다."

"이 지에 머물러서 삼계열 되어 삼승의 모든 법문 연설도 하고 잠간 동안 한량없는 삼매 얻으며 부처님을 뵈옵도 이와 같더라(住此多作三界王 善能演說三乘法 無量三昧一念得 所見諸

허공을 나는 새 자취 없듯이...

결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뿐

같으며..."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나니라.

지금까지의 십지수행을 대해 십덕(十德)에 비유하여 밝히고 있다. ① 차례로 점점 깊어짐(次第漸深)이요 ② 송장을 받아두지 않음(不受死屍)이요 ③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잃음(餘水入中 皆失本名)이요 ④ 모두 다 한 맛(皆同一味)이요 ⑤ 한량 없는 보물이 있음(無量珍寶) ⑥ 바닷까지 이를 수 없으며(無能至底) ⑦ 넓고 커서 한량이 없음(廣大無量) ⑧ 큰 짐승들이 사는 곳(大身所居)이요 ⑨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潮不過限) ⑩ 큰 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않는 다(普受大雨 無有盈溢)고 하였다. 보살행도 그와 같아서,

"이러바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 구지는 모든 파계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요, 법운지는

佛亦如是. 시방 국토 부수어 티끌 된 것은 한 생각에 그 수효 알 수 있고 털끝으로 허공 재어 안다 하여도 이 공덕은 억겁동안 말로 못 다해(十方國土碎為塵 可於一念知其數 毫末度量可知 量 億劫說此不可盡)."

불법의 오묘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십지법문의 서두에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다"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덕은 억겁동안 말로 하여도 다할 수 없다'고 결론 맺고 있다.

여기서 화엄의 한 품을 끝내고는 항상 결통시방(結通十方)이니 결통무진(結通無盡)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그것은 결론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올해 겪은 물난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오는 것이니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겠다. 이렇게 여섯 번째 타화천공의 십지법문이 끝나고 있다.

■ 불경선사 농업학원 연구원



그림 · 문병성

인위적 유전조작 재앙 초래

불교와 과학 <44>

1997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돌리 양의 탄생은 인간복제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과학 신봉자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었다. 기존의 육종학자들이 해 왔던 생식세포 복제와 달리 체세포 복제란 손오공의 머리 한 올을 입김으로 불어서 수많은 동일한 손오공을 만든다는 이야기와 원리적으로는 같다. 이런 유전공학의 성과는 결국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극단적인 자아 정체성의 철학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앞서 유전공학의 실용화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과거 우생학이 가져다준 사회 윤리의 혼란은 생식세포의 변형을 통한 과학의 무책임성에 있었지만,

이제 체세포의 인위적인 변형을 통한 유전공학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생명윤리의 과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인데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대 유전공학의 흐름은 이런 사회적 비판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생명복지의 문제를 유전공학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신념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많은 불치병 환자 가족들에게 유전자 치료법이 당장 나올 것이라는 과신과 책임질 수 없는 지나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희망을 등에 업은 유전공학의 내막은 올해 초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어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논쟁 역시 가속화되었다. 이런 논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유전자 자체가 세포 차원에서 혹은 생명개체 차원에서 생명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의 틀을 내포한다. 이 문제는 이미 앞의 지면에서 다룬 적이 있었다.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한 유전자 복제는 유전자 자체가 각각의 고유한 형질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생명개체의 생명성은 유전자의 총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사유가 가능해진다.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철학적이건 신학적이건 혹은 경제학적이건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지니는 유전자에 의해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생명체는 유전자의 기계적 조립품일 뿐이다. 이런 과학 탐구의 결과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철학·신학적 문제와 사회윤리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생명윤리

과학탐구-생명윤리 조화 절실 통제 안된 과학 연기법 어긋나

이런 논쟁을 잘 들여다보면 내용과 관계없이 시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 그룹 혹은 과학 신봉자들은 과학 탐구와 그 실용적 가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갈 길이 바쁜 데 괜히 인문학적 시비를 걸어 귀찮을 정도로 사회적 논란 거리를 만드는지 의아해 한다. 그들은 비판적 인문사회학자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현재의 과학탐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인문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 그룹이 사회와 절연된 실험실 연구에 머물러 진정한 생명 가치를 모르는 채 맹목적으로 연구 성과에 집착하는 정도가 위험수위로 다가 가고 있다는 단순한 판단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과학의 기초 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을 못한 상태에서 풍문이나 대중적인 3차 자료만을 근거로 사회가치적 주장 만이 있을 때, 현재 유전공학 연구 성과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양쪽의 문제들을 조율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논쟁은 많지만 상대의 이해를 구하거나 협조하는 일은 쉽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생

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학과 과학자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대중적 여론과 유전공학 연구자들의 연구 현실 사이에서 두 시야를 한 공간에 겹쳐 보는 정말 심도 있는 연결 논쟁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그 연결 고리에 대하여 종교계가 나서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한다.

이미 가톨릭계를 포함한 기독교계에서는 생명윤리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기독교에서는 유전공학의 성과들이 신의 창조라는 절대적 지위와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반면 창조론의 절대적 권능과 초월적인 서구의 신개념과 다른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행복추구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계의 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이 식품이나 생체유전자공학은 억지추행의 인위적인 인연을 조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교라고 해서 과학의 탐구 의지를 꺾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과학의 결과물들이 연기법의 흐름을 먹고 비틀어 버린다면, 그 일은 불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 최충덕/상대교 교수 jdchoi@chak.sangji.ac.kr

힌두교도 6천여명 수계받고 불교귀의

지구촌 불교 / 인도 천민계급 개종

인도의 신분제에서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 6천여 명이 신분 차별에 항의해 9일 칸푸르(Kanpur)에서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는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었다.

달리트 위원회에 따르면 수계법회는 남아프리카 더반(Durban)에서 지난 8일 폐막한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U.N World Conference on Racism)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항의해 마련됐다.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는 당초 달리트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 인도 내 신분차별을 의제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달리트 위원회의 람 프사드 라쉬크(Ram Prasad Raskhi) 위원 은 "신분차별은 인종차별과 다름 바 없는데, 더반 회의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우리(달리트)를 외면했다"며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피 통신은 "지난 3천여 년 간 신분 차별을 숙명으로 생각해 온 달리트들이 20세기 이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의식 역시 다수의



칸푸르 수계법회에 앞서 신분차별을 반대하는 포스트를 들고 있는 달리트.

'유엔인종회의' 카스트제도 외면 반발 평등·자유사상 매료... 내달 1만명 수계

달리트들이 불교의 평등, 자유사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10억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달리트는 브리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등 힌두교의 4개 카스트에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民, Untouchable)을 지칭한다. '불가촉천민'이란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단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인도 정부는 195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없앴지만, 아직까지 인도를 유지하는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티베트 네트워크 뉴스(Tibet Network News)는 "10월 14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도 1만여 달리트들이 참여하는 수계법회가 봉행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다림살리에 있는 티베트광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달리트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이런 현상이 힌두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뉴델리의 수계법회가 신분차별이나 타종교에 대한 반감 표출로서의 개종이 아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부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응해 귀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델리 수계법회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불교로 귀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인도연맹(India Confederation)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인도연맹은 신분차별을 반대하는 달리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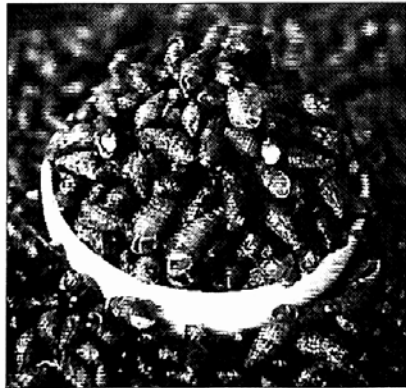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gobaccu@buddhapa.com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걸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문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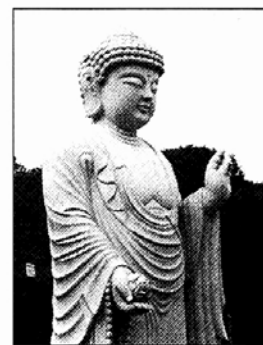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얹은 뒤왕겨에 물을 붓어 그 열로 다슬기가 양속에 묻어둔 빈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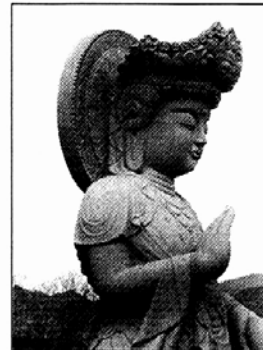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